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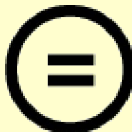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한
김 동 훈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에 관한 연구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A Study of Ecological Renewal planning for Jeju-do
Mugeunseong's Old Downtown Residential Area
- Based on Félix Guattari's 'Three Ecologies'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계획전공

양 혜 숙

2009年 12月 28日



HONGIK UNIVERSITY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에 관한 연구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A Study of Ecological Renewal planning for Jeju-do
Mugeunseong's Old Downtown Residential Area
- Based on Félix Guattari's 'Three Ecologies'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年 12月 28日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계획전공

양 혜 숙



HONGIK UNIVERSITY

양혜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추천함.

2009年 12月 28日

지도교수 조 한
 김 동 훈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양혜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 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구도심에는 전통적인 공간구조와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규제완화, 건물의 노후화, 거주자 생활상의 변화, 상업 업무용 건물의 수요증가, 차량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유동인구는 확보 되더라도 상주인구가 확보되지 않는 이른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재개발과 재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도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철거위주 재개발 방식이 우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거위주 재개발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거주민의 재입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역사의 단절을 불러오고 있어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구 도심지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주거지의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닌 생태적 재생의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생의 방법에 있어서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를 빌어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사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생태' 사유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생태학적 개념으로써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가타리는 지구라는 혹성은 이제 강렬한 과학 기술적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대신에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상에서 생명의 존속을 위협할 생태학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변과 함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 생활양식도 점차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친족 연계는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생활은 대중 매체적 소비로 침식되고 부부 생활과 가족생



활은 종종 일종의 행동표준화(획일화)에 의해서 '경화(硬化)되며 이웃 관계도 일반적으로 아주 빈약한 표현으로 축소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주체성과 그 외부의 관계가 일종의 내부파열(implosion)과 소아적인 퇴행이라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말려 있다는 것으로 가타리는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세 가지 생태학'을 주장하면서 환경생태학, 사회생태학, 정신생태학의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가 진정한 의미의 생태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인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에 기대어 사고의 시야를 넓힌 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생태적 재생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정리한다.

둘째,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사례 분석을 통하여 주거지의 생태적 재생을 제안할 수 있는 형태 및 공간생성 기법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정리한다.

셋째, 이론에서 검토한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도시조직의 변화와 연속 그리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도시 성장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기본 전제로 하고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주거지를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측면에서 바라보아, 노후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타리의 생태철학 이론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노후주거지를 생태적으로 재생하는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태학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함과 동시에 철학자의 사유를 근거로 삼아 건축적으로 재해석 하고, 이를 실제 계획안에 제안하여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재생에 대한 계획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목 차 ■

■ 국문초록	I
■ 표 목 차	VI
■ 그림목차	VII
제 1 장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1.2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노후주거지의 재생	6
2.1 노후주거지의 개념	6
2.2 노후주거지의 재생	7
제 3 장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9
3.1 생태건축의 등장 배경	9
3.2 생태중심적 사고에 대한 고찰	9
3.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10
3.3.1 개관	10
3.3.2 환경생태학	12
3.3.3 사회생태학	13
3.3.4 정신생태학	14
3.4 소 결	14



제 4 장 ‘세 가지 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7
4.1 환경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7
4.2 사회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8
4.3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9
4.4 기존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사례 조사 및 분석	20
4.5 소결	23
 제 5 장 설계 계획안	 25
5.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5
5.2 계획대지의 선정 및 분석	26
5.2.1 계획 대지의 선정	26
5.2.2 계획 대지의 역사성	27
5.2.3 계획 대지의 문제점 분석	28
5.2.4 계획 대지의 현황 분석	30
5.3 계획안 개요	31
5.3.1 기본 계획의 방향	31
1) 주거지와 초등학교의 연계	31
2) 길의 재생	32
3) 과거의 흔적, 보존 및 재생	33
5.3.2 계획안 개요	34
5.4 건축 계획	35
5.4.1 프로그램 계획	35
5.4.2 배치 계획	36
5.4.3 Mass Design Concept	37



5.4.4 공간 계획	38
1)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의 건축적 변용	38
2) A zone	39
3) B zone	40
4) C zone	41
5) D zone	42
5.4.5 평면 계획	43
5.4.6 입면 계획	48
5.4.7 단면 계획	49
5.5 전시패널 / 모형사진	50
5.5.1 전시패널	50
5.5.2 모형사진	51
5.6 계획도면 / 투시도	52
 제 6 장 결 론	 62
 ■ 참 고 문 헌	 64
■ ABSTRACT	66



■ 표 목차 ■

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표 2) 연구의 흐름도	4
표 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대응관계	12
표 4) 환경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7
표 5) 사회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19
표 6)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20
표 7) ‘세 가지 생태학’에 근거한 국내외 노후주거지 재생사례의 분석	20
표 8) 대지 주변의 역사성	27
표 9) 현황 사진 및 현황 대지의 문제 제기	28
표 10) 현황 분석	30
표 11) 주거지와 초등학교의 연계	31
표 12) 길의 재생	32
표 13) 과거의 흔적 보존 및 재생	33
표 16) Mass study	37
표 17) ‘세 가지 생태학’ 다이어그램 대응관계	38
표 18) A zone 공간계획	39
표 19) B zone 공간계획	40
표 20) C zone 공간계획	41
표 21) D zone 공간계획	42
표 22) 입면 재질의 연속성	48
표 23) 전시 패널	50
표 24) Model Image	51



■ 그림 목차 ■

그림 1)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위치도	26
그림 2) 프로그램 구성	35
그림 3) 지하층 평면도	44
그림 4) 1층 평면도	45
그림 5) 2층 평면도	46
그림 6) 3층 평면도	47
그림 7) 단면도 - 1	49
그림 8) 단면도 - 2	49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구도심에는 전통적인 공간구조와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들이 남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의 노후화, 거주자 생활상의 변화, 차량의 증가, 규제완화, 상업 업무용 건물의 수요증가 등의 원인으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슬럼화 되어가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재개발과 재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도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이 우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거주민의 재 입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지역으로서의 흐름을 끊는 단점을 불러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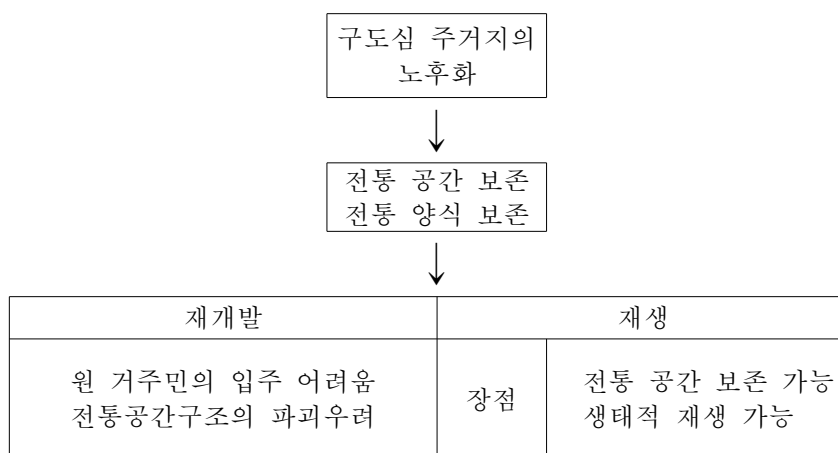


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구 도심지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주거지의 전면철거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의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공간 구조는 되살아나고 원거주민들 또한 계속 그 거주지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재생의 방법에 있어서는 환경적 측면만이 강조된 생태적 재생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생태적 재생 개념을 연구하고 도입한 생태적 재생 계획안을 도출하여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넓은 의미의 생태적 재생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에 관한 연구이다. 재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생태적 방법을 적용하되 환경적 측면의 생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생태 개념을 도입하였다.

생태 개념은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펠릭스 가타리는 ‘환경생태학’ 이외에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의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의 ‘생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주거지 재생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에 기대어 사고의 시야를 넓힌 후,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태적 재생 계획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정리해 본다.



셋째,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사례 분석을 통하여 주거지의 생태적 재생을 제안할 수 있는 형태 및 공간생성 기법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법을 정리한다.

넷째,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를 대상지로 설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위의 이론에서 검토한 디자인 방법을 토대로 하여 대상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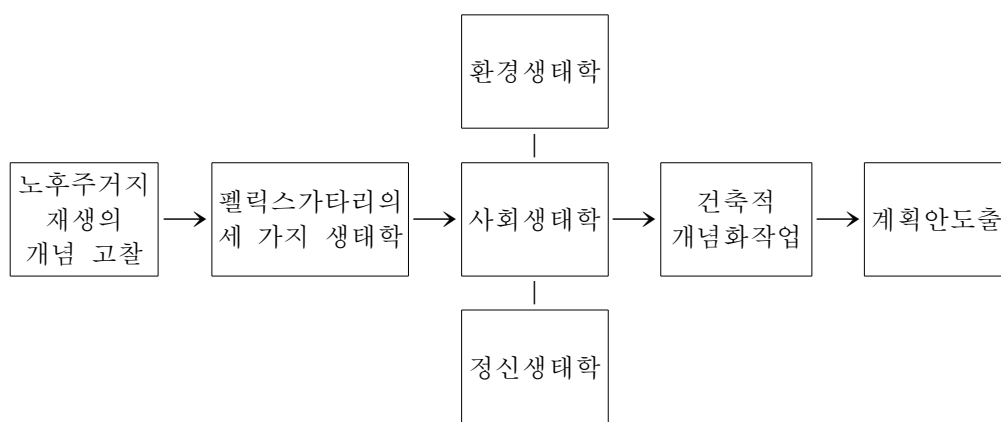


표 2) 연구의 흐름도

2. 노후주거지의 재생

2.1 노후주거지의 개념

2.2 노후주거지의 재생



제 2 장 노후주거지의 재생

2.1 노후주거지의 개념

노후주거지에 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불량주거지’, ‘노후불량주거지’, ‘일반노후주거지’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노후주거지’ 관련 연구에서, 노후주거지 개념은 “시간이 경과하여 주택 및 주변 환경의 기능이 저하된 노후화된 주거지(일반노후주거지)”와 “불량하고 불법적인 주택이 밀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한 주거지 (노후불량주거지)”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후자 두 가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와 ‘불량주거지’를 제외한 주거지만을 ‘노후주거지’로 정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노후주거지’ 중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 (이러한 주택을 ‘노후불량주택’이라 함)이 밀집되어 있으며, 물리적 상태도 열악한 지역은 최근까지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전면재개발 방식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포괄적 개념의 ‘노후주거지’에는 건축물의 상태는 노후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유(이러한 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함) 하고 있어서, 전면재개발 보다는 수복형 정비가 적합한 주거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후주거지’의 개념을 축소하여 도시 기반 시설이 양호하며, 자력에 의한 수복형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¹⁾

1) 김청원,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 서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7



2.2 노후주거지의 재생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1960년대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공동주택의 비중은 전체 주택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층수도 70년대 초까지는 주로 5층 규모의 저층아파트가 건립되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15층 규모로 고층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초고층아파트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²⁾ 그러나,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용지확보가 용이한 도시외곽과 신도시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기존 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왔다. 인구정체가 뚜렷한 도시에서 신규 택지개발이 도시외곽에 집중되어 도심의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부정적인 파급현상으로 이어졌다. 여러 가지 도심활성화 사업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는 피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볼 때 도심재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의 주거확보를 통한 도심주거재생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다. 도심에 신규 업무 및 상업 기능의 도입으로 유동인구가 확보되더라도 상주인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³⁾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노후주거지의 주거기능을 강화하면서 초고층으로의 개발 방식 보다는 기존주거지의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재생의 방법을 택하여 대상지를 정하고 계획안을 도출하여 도심 재생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해성, 고밀도 집합주거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33권 6호, pp.24-25, 1989

3) 황지욱외 4인, 도심 주거재생을 위한 저층고밀 단독주거지 유형분석과 적정규모 산정,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24권 5호, pp249-251, 2008



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3.1 생태건축의 등장 배경

3.2 생태중심적 사고에 대한 고찰

3.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3.4 소 결



제 3 장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3.1 생태건축의 등장 배경

산업사회의 형성과 재생산의 맥락에서 산업 및 사회적 프로세스들은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왔으며, 그러한 작용이 피드백 되어 자연적 환경요소들도 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는 반응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반복되어 순환적 구도를 가지며, 사슬과 같은 체제를 보이며 심지어 얽혀있는 연결망과도 같은 양상을 띤다. 이러한 사회적 프로세스와 자연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이 결과로 현대 산업은 극도를 치닫는 환경문제를 수반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산업주의의 합리성과 관습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시는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대 건축에 대한 한 반향으로 나타난 생태적 건축 경향은 1960년대를 시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그 범위가 확산되어 지금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3.2 생태중심적 사고에 대한 고찰

서양 유대기독교 전통과 르네상스를 거쳐 데카르트나 베이컨 등에 의해 성립된 근대적 자아를 배경으로 한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에서, 자연은 단지 인간 활동의 배경으로 그리고 정복·이용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정복자인 인간에게 재정적 보상이라는 의미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개발’의 정당성은 이러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

4) 이윤희, 생태중심적 사고와 현대 생태학적 건축의 상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5권 8호, pp.3-4, 2009



반성은 데카르트적 이성애 바탕을 둔 근대성 비판에서 출발한다. 인식의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합리성은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이라는 개가를 올렸지만 동시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인류 절멸의 위기를 초래했다. 간디는 일찍이 서구식 산업주의가 인류 모두에게 최악의 저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그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됐다.

여기서 생태철학이 등장한다. 기존 사유의 틀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생태철학은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에서 자연은 말이 없고 이성애 의해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객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총체적 위기 앞에서 생태철학은 그동안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자연환경을 인식주체로 끌어들인다. 이 점에서 생태철학은 환경윤리학과 구분된다. 환경윤리학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생태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는 세계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3.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3.3.1 개관

우리 사회의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은 환경오염문제를 넘어 다양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대안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 운동이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대안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어 생태적인 문제설정은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가타리는 지구라는 혹성은 이제 강렬한 과학 기술적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대신에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상에서 생명의 존속을 위협할 생태학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격변과 함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 생활 양식도 점차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친족연계는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 생활은 대중 매체적 소비로 침식되고 있으며, 부부생활과 가족 생활은 종종 일종의 행동 표준화(획일화)에 의해서 '경화(硬貨)'되며 이웃 관계도 일반적으로 아주 빈약한 표현으로 축소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주체성과 그 외부 - 그 외부가 사회적이든 동물적이든 식물적이든 우주적이든 - 의 관계가 일종의 내부 파열(implosion)과 소아적인 퇴행이라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말려 있다는 것이다.

정보 혁명에 의해서 감속된 기계 노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력은 더 많은 인간의 잠재적 활동 시간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이러한 시간이 문화·창조·연구·환경 재발명·생활양식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쓰이는지 의문시 된다고 진단하였다.

경제 원조는 제3세계의 몇몇 나라를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궁핍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유럽의 광범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급증하여 체르노빌 형태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늘고 있으며 사소한 기술적 고장이나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집단 몰살을 가져올 수 있는 수천 발씩 저장된 핵탄두가 지닌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가타리는 종래의 생태 운동이 이른바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에 한정되어 왔다는 것에 의문과 불만을 느끼면서 무엇보다도 그것만으로 현대 세계의 전면적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환경생태학에 덧붙여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의 삼위일체적인 이론 전개를 제창하였다. 즉 이 세 가지 생태학을 윤리-정치적으로 접합하는 고리로서의 철학적 실천 개념이 생태철학(écosophie, écologie



와 philosophie의 합성어) 이다. 여기서 환경생태학에서 ‘환경’에는 ‘자연(오염)’을, 사회생태학에서 ‘사회’에는 ‘사회관계’를, 정신생태학에서 ‘정신’에는 ‘인간의 주체성’을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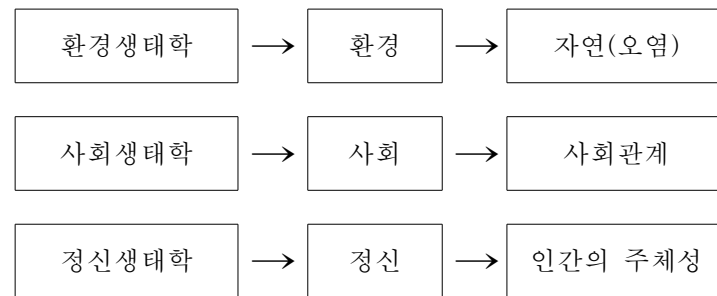


표 3)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대응관계

3.3.2 환경생태학

가타리에 의하면 오늘날 있는 그대로의 환경생태학은 사회 투쟁이나 자신의 고유한 정신을 취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탈중심화(분산)한다는 목적을 지닌 전반적인 생태학을 개시하고 예시할 뿐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생태운동은 물론 많은 공로가 있으나 생태학의 함축적 의미는 자연 애호가나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한줌의 소수파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생태학의 함축적 의미는 자본주의 권력 구성체와 주체성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연의 균형은 이제 점점 인간의 개입에 달려있으며 지상의 공기 속에 있는 산소·오존·탄산가스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정의하였다.

5) 펠릭스 가타리, 윤수종 옮김,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현대신서, 2003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제는 자연의 옹호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허파를 회복하기 위한, 사하라를 소생시키기 위한 공격일 것이며, 신종 동식물의 창조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위협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한 이러한 상태에 적합한 생태 철학적 윤리의 채택이 긴급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긴급히 요구된다.⁶⁾고 주장하였다.

3.3.3 사회생태학

사회적 생태철학은 커플사이에, 가족·도시생활·노동 등에서 존재 방식을 수정하고 재발명하는 데로 나아가는 특정한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구 밀도가 아주 희박하고 사회관계의 밀도가 오늘날보다도 훨씬 강했던 시기에 일치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나 집단적 존재양식 전체를 문자 그대로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래도 그것은 단순히 '소통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의 본질에 관련한 실존적인 돌연변이(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지향에 머무르지 말고, 대규모 제도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미시 사회적 수준에서도 실효성 있는 실험적 실천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사회생태학은 사회체의 모든 수준에서 인간 관계의 재구축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생태학은 자본주의 권력이 지역을 벗어나 탈영토화되고, 바깥으로는 지구상의 사회·경제·문화 생활 전체에 세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안으로'는 가장 무의식적인 주체적 지층들 내부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그 경우 자본주의 권력에 대해서 단순히 외부로부터 조합 활동이나 전통적인 정치 활동으로 대항하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개인·가정·부부의 일상 생활에 둘러싸이고, 이웃관계·창조·개인적 윤리에 둘러싸인 정신생태학의 영역에서 자본주의 권력의 효과들에 대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6) 펠릭스 가타리, 윤수종 옮김,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현대신서, 2003



3.3.4 정신생태학

정신생태학은 신체·환상·지나간 시간(과거)·생과 사의 '신비'에 대한 주체의 관계를 재발명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정신적 생태철학은 대중 매체나 정보 통신의 획일화에, 행동 양식의 순응 태도에, 광고와 각종 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에 해독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정신적 생태철학의 실행 방식은 과학성이란 시대에 뒤진 이상에 항상 집착하는 '정신분석' 전문가들의 방식보다도 예술가의 방식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4 소 결

가타리가 이러한 세 가지 생태학을 제기하는 것은 이들 “생태학의 세 가지 근본적인 작용영역의 재접합이 없는 한 안타깝게도 인종주의(인종차별), 종교적 광신, 반동적인 재폐쇄 속에서 동요하는 소수민족의 분열의 위협, 어린이 노동의 착취, 여성의 억압 등과 같은 모든 위협이 늘어난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가지 생태학을 접합하여 사고하는 것에서 가타리는 자신의 궁극적인 핵심 주제인 '주체성 생산' 문제로 나아간다.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이 맞서야 하는 “중요한 분석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억압 권력을 피억압자 쪽에서 장악하는 것”이라고 제기하면서도, 특히 “자본과 인간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여건’이란 맥락에서 생태적 페미니즘 반인종 차별인 자각이 주체성 생산 양식을 신속히 주요한 목표로 삼기를 기대하자” 라고 한다.

결국 생태학은 자본주의 권력구성체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주체성 전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타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커다란 위협으로부터의 탈출은 정확히 발생기 상태의 주체성과 변이 상태의 사회체와 재창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집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세 가지 생태학은 각각을 특징짓는 실천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구별되지 만 하나의 공통적인 미적-윤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7) 윤수중, 분자혁명에서 생태철학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사상변화,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현대신서, 2003



4. ‘세 가지 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4.1 환경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4.2 사회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4.3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4.4 기존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사례 조사 및 분석

4.5 소결



제 4 장 ‘세 가지 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지금까지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 세 가지 이론을 건축 디자인 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적으로 재해석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4.1 환경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가타리에 의하면 오늘날 있는 그대로의 환경생태학은 사회 투쟁이나 자신의 고유한 정신을 취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탈중심화(분산)한다는 목적을 지닌 전반적인 생태학을 개시하고 예시할 뿐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생태운동은 물론 많은 공로가 있으나 생태학의 함축적 의미는 자연 애호가나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한줌의 소수파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생태학의 함축적 의미는 자본주의 권력 구성체와 주체성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연의 균형은 이제 점점 인간의 개입에 달려있으며 지상의 공기 속에 있는 산소·오존·탄산가스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정의하였다.

환경 생태학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생태 연구들은 친환경적 공간 계획을 제시하여왔고 환경적 측면의 생태 방법은 많이 제시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학의 측면 보다는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표 4) 환경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가타리의 세가지 생태학	건축적 해석
환경 생태학	
지상의 공기 속에 있는 산소·오존·탄산가스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적 공간 계획 제시
정치집단의 서열화, 조직화된 정체성이 인간 개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있다.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제시

4.2 사회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사회적 생태철학은 커플사이에, 가족·도시생활·노동 등에서 존재 방식을 수정하고 재발명하는 데로 나아가는 특정한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구 밀도가 아주 희박하고 사회관계의 밀도가 오늘날보다도 훨씬 강했던 시기에 일치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나 집단적 존재양식 전체를 문자 그대로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래도 그것은 단순히 '소통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의 본질에 관련한 실존적인 돌연변이(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지향에 머무르지 말고, 대규모 제도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미시 사회적 수준에서도 실효성 있는 실험적 실천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가타리는 가족, 도시생활 사이의 존재 방식이 수정되어야만 생태학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가타리의 사회생태학을 건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면 기존 노후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평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과 현재의 주체적이지 못한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제안하여 집단적 존재 사이에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축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5) 사회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건축적 해석
사회 생태학	
가족, 도시생활 사이의 존재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	노후단독주택 평면의 대안제시
집단적 존재양식을 재구축해야 한다.	자족적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안
가정생활이 대중 매체적 소비로 침식당하고 있다.	거실 중심 평면 문화에 대한 대안 제시
이웃관계 축소, 빈약해지고 있다.	아파트 EV공간의 대안제시 '길'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단순히 '소통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의 본질에 관련한 실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계'의 벽을 허물고 관계성 증진시키는 공간 제안

4.3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가타리는 정신 생태학의 결정적 목표는 의미작용과 단절한 비기표적 절단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미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 즉 무의미와 비기표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건축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부정적이고 노후화된 공간을 사라져야 할 공간으로 판단하고 존재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노후화되고 부정적인 공간에 적합한 표현양식을 정비하고 그 노후화 속에 억압되어 표출되지 못한 공간들을 다시 의식화하도록 하여 표류했던 공간들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으로 노후화된 공간 이미지를 해제 반응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6) 정신생태학의 건축적 해석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건축적 해석
정신 생태학	
의미작용과 단절한 비기표적 절단 지점을 파악해야 한다.	노후공간을 인식하는 기준 파악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신(환영)에 적합한 표현양식을 정비한다.	노후공간에 적합한 건축적 표현 방법 연구
억압되어 무의식화된 것(욕망)을 의식화하도록 하여 표류하는 실존적 영토(의식적인 정신)을 다시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해제반응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억압되어 있는 공간들을 끌어내어 새로이 공간을 창출하는 방법 연구

4.4 기존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사례 조사 및 분석

위의 건축적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노후주거지의 재생 사례를 찾아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측면에서 각각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표 7) '세 가지 생태학'에 근거한 국내외 노후주거지 재생사례의 분석

사례	특성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학	정신 생태학
Ballymun, Dublin	 대형 아파트건물을 2층 단독주택으로 재생하여 인간적 스케일감 확보 ; 관계성 제시	○	○	
	 주변 모든 주택들이 공원을 향해 둘러싸임으로써 범죄를 줄임 ; 경계의 벽 허물기			

사례	특성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학	정신 생태학	정신 생태학
Egebjerggard, Denmark		주거지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생물 서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친환경	○	○	
		고층주택단지를 저층 주택단지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탈경계			
스미다구 쿄지마 지구 ,일본		지속적으로 주민과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함 : 친환경	○	○	
		이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주택, 썸지공원, 집회소건설, 예술가인의 이주 ; 커뮤니티형성			
키야시마 히가시 지구 ,일본		주변지역의 도로 및 공원, 녹지 등의 정비와 연동하여 연동형 주택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도시경관창출	○		
네야가와 지구 ,일본		좁은 도로폭을 확폭하고, 노후목조주택군은 재건축을 유도하여 정비	○	○	
		보행광장 조성, 중정을 중심으로 가로에 대응하는 口자형으로 주동 배치 ; 커뮤니티 유도			

사례	특성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학	정신 생태학	정신 생태학
Ludekestrasse ,Berlin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의 단열 및 차음 성능을 개선, 외부공간의 재자연화 ; 친환경	○		
Jordaan ,Amsterdam		지구 내에 저소득층 주거를 그대로 유지 개발, 과거로부터 형성된 사회구조 보존 ; 지속가능성	○	○	
		남은 중정을 이용하여 오픈 스페이스 설치, 좁은 가로에 맞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미설치 원칙 ; 커뮤니티 유지			
Bologna ,Italy		기존도시조직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현대의 생활에 알맞은 건축적 유형을 개발, 적용함		○	
아게오지구 ,일본		소규모 썸지공원, 선형의 녹지대 정비, 투습성 있는 재료로 도로 정비 ; 친환경	○	○	
		기존 커뮤니티 유지위해 정비사업 후에도 기존 용도 수용, 인접 필지 간 공동개발 ; 커뮤니티 유지			

4.5 소결

지금까지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철학적 사유에 대하여 파악하고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생태적 재생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고, 건축적인 재생의 방법에 있어서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노후주거지의 재생 사례를 분석하고, 실행된 재생방안을 환경생태학·사회생태학·정신생태학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정비 사업들이 대규모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킴과 함께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점진적 도로 확폭을 하는 등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변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전면 재개발로 인한 커뮤니티 해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측면에서 노후주거지의 재생의 방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례들이 환경생태학과 사회생태학에만 치우친 재생 방법을 택하고 있고 정신생태학적 측면에서는 재생의 방법이 많이 연구·실행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앞으로 환경·사회 생태학과 더불어 정신생태학의 삼위일체적인 재생 방법을 더 발전시켜 진정한 의미의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공간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설계 계획안

5.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5.2 계획대지의 선정 및 분석

5.3 계획 대지의 문제점 분석

5.4 건축 계획

5.5 전시패널 / 모형사진

5.6 계획도면 / 투시도



제 5 장 설계 계획안

5.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구도심에는 전통적인 공간구조와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들이 남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의 노후화, 거주자 생활상의 변화, 차량의 증가, 규제 완화, 상업 업무용 건물의 수요증가 등의 원인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슬럼화 되어가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재개발과 재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도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이 우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거주민의 재입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지로서의 흐름을 끊는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하여 본 계획은 구도심지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주거지의 전면철거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생태적 재생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생의 방법 계획에 있어서는 앞 장의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하여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적 사유를 빌어 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가타리의 '생태'사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생태'사유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생태학적 개념으로써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5.2 계획대지의 선정 및 분석

5.2.1 계획 대지의 선정

대상지인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일대는 제주도의 최초의 주거지로서의 역사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제주 읍성의 옛 흔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2층 이하의 주거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80-90년 된 주거 건축물이 상태가 양호한 채로 보존되어 있다.

가로체계는 사람들의 소통이 중요하던 옛날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자동차의 동선과 혼재됨으로써 기존 가로의 형태와 공간감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노후화의 진행과정으로 두고, 지역 발전과 개발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시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층화로의 재개발의 방법인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는 재생인지의 개발관점이 양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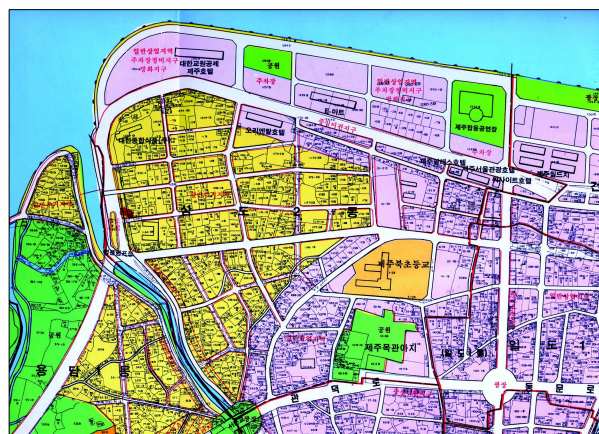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위치도

5.2.2 계획 대지의 역사성

본 계획 대상지 주변에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의 주거 건축물이 상태가 양호한 채로 보존되어 있다. 제주 읍성의 옛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최초의 주거지이며 100년 전통 역사의 초등학교가 존재한다.

제주 옛 관아의 유적인 제주 목관아지, 근대 건축물의 역사를 지닌 구 제주 시청사 등 역사적인 건물들과, 아직 남아 있는 골목길 등 기존의 가로 공간과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근래 들어 기존의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대지 주변의 역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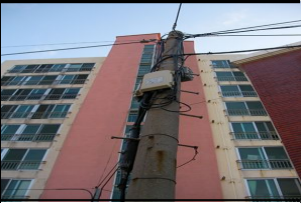


5.2.3 계획 대지의 문제점 분석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 대상지에 적합한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9) 현황 사진 및 현황 대지의 문제 제기

대상지의 문제점	문제점의 결과	
밀집된 취락 형태	슬럼화	
	주차공간 부족	
	유희공간(공원, 커뮤니티 공간) 부족	
자동차 동선 유입으로 인한 가로체계 변형	보행동선과 주차동선이 겹침으로써 보행에 불편	
	보행 주거지의 단절	
	주거지의 흐름 단절	
무분별한 재개발	보존가치 있는 건물의 철거-->주거지 역사성 단절	
	저층건물과 고층건물의 혼재	
	가로체계 변화	
노후주거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동선의 혼재로 낙후 지역으로 전락		

		
좁은골목, 주차공간부족	슬럼화	고층아파트-사회성 단절


남아있는 역사적 주거의 흔적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계획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세 가지 생태학’ 이론을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자 한다.

- 기존의 낙후된 주거지역을 낙후되었다고 모두 전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의 방법을 택하여, 보행 중심의 주거지로 변모시키고자한다.

- 좁은 골목의 슬럼화 해결에 있어서 골목길에 시야와 동선이 오픈된 주거를 계획함으로써 기존 골목이 가지고 있는 거주민 사이의 커뮤니티 장점을 살린다.

- 주차 해결은 주거지 내 일부 구역에 지하주차와 유희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소방도로 이외에는 보행중심이 되는 보행로가 위주로 되도록 계획한다.

- 역사성이 있는 노후주거는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로 재활용 하도록 계획한다.

이로써 역사성이 있는 가로 체계를 재생시켜 펠릭스 가타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를 건축적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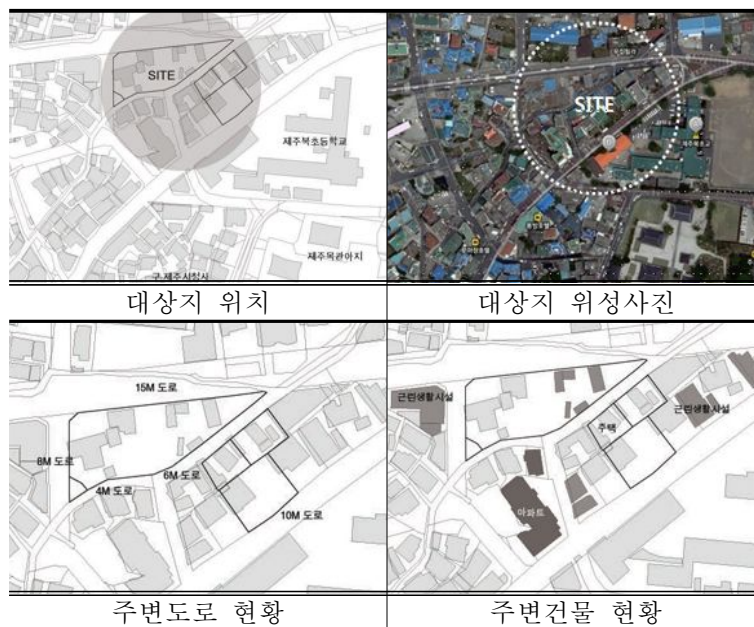
5.2.4 계획 대지의 현황 분석

대상지는 남측 10m, 북측 15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지길이는 긴 변 250m, 짧은 변 150m 이다. 대지내의 고저차는 없고, 100년 역사의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한다.

계획대지는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겹치는 구역이다. 이 상업지역으로 인해 일반주거지역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떨어지므로 주거지역으로서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대상지 주변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그리고 대 도로변과 접하는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다.

표 10) 현황 분석



5.3 계획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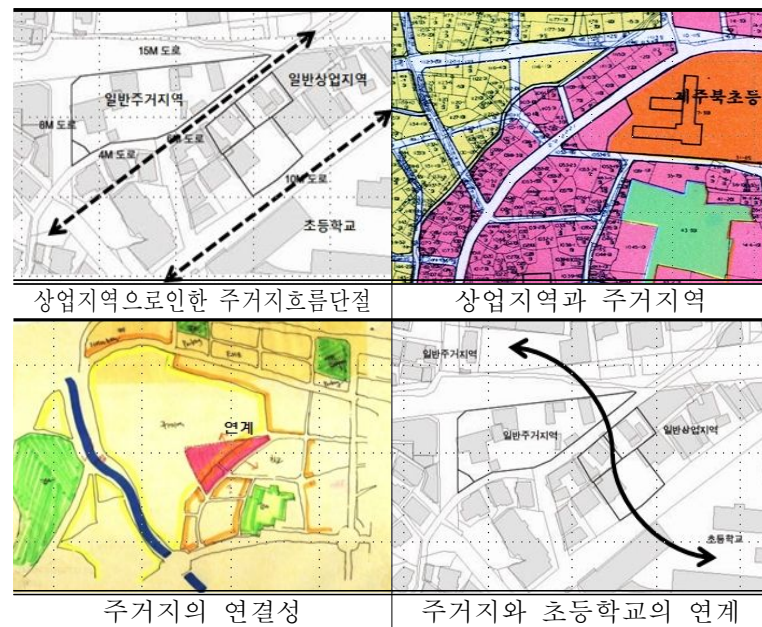
5.3.1 기본 계획의 방향

1) 주거지와 초등학교의 연계

대상지는 주거지로서의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지이나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겹치는 구역이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초등학교가 상업지역으로 인해 주거지로서의 흐름이 단절이 되고 있다.

대상지에 끊겼던 주거지의 흐름을 되살리는 공간연계를 계획함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지의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

표 11) 주거지와 초등학교의 연계



2) 길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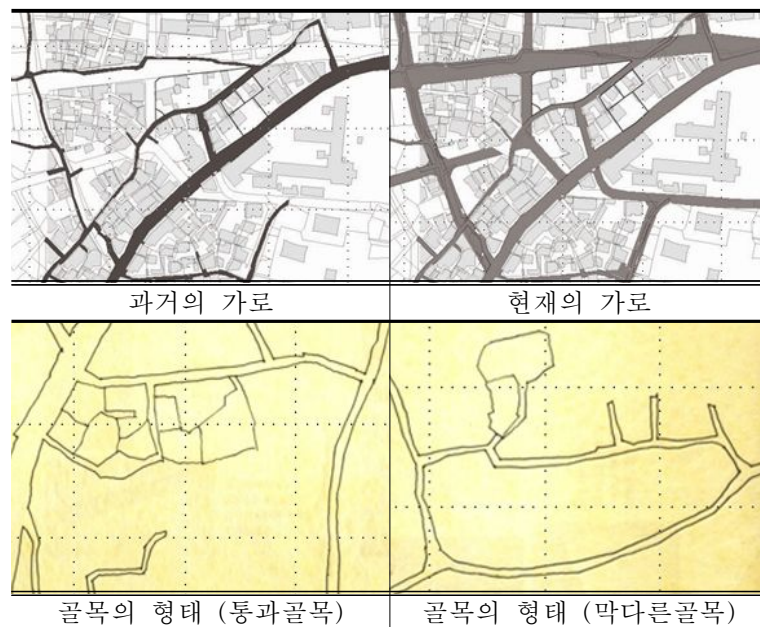
옛 길에는 큰 길에서 좁은 길로 그리고 막힌 골목으로 공간의 위계가 존재해 왔다. 이것이 골목길이다. 골목길은 거주민의 통로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 동선의 침범과 거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길의 공간 위계는 깨지고 변모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길의 재생을 통하여 현재의 길의 위계를 다시 재조정 하여 예전의 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되살려보고자 한다.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이론에서 사회생태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골목길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통의 장애를 해소하여 관계성을 지닌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표 12) 길의 재생



3) 과거의 흔적, 보존 및 재생

대상지의 남측으로 80년 정도 노후 된 제주 전통 가옥들이 두 채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두 채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물들도 입면의 형태가 잘 보존된 채 남아있다.

가타리의 정신 생태학을 건축적 해석을 해 볼 때, 노후화 된 것은 모두 없애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 뒤에 숨겨져 있는 공간을 끌어내야 한다고 여겨진다.

건축적으로 좀 더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물을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그 위를 관통하는 브릿지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느껴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표 13) 과거의 흔적 보존 및 재생



5.3.2 계획안 개요

표 14)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 위치	제주도 제주시 삼도 이동 1116-1외 2필지	
지역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구 분	1116-1외 1필지	1112-11대
대지 면적	1,809 m ²	542 m ²
건축 면적	1,035 m ²	111 m ²
연 면 적	2,415 m ²	288 m ²
건 폐 율	57.2 %	20.5 %
용 적 율	133.5 %	53.1 %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프로그램현황	상업시설, 주거시설	노유자시설, 커뮤니티시설

5.4 건축 계획

5.4.1 프로그램 계획

대상지는 현재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 도로변으로는 현재 주거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시설을 계획하였고 상업시설의 시야의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복층으로 계획하였다.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골목을 생성하고 골목의 폐쇄성을 줄이고 외부를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호 주거와 변형된 주거 형태를 계획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배치는 소통을 매개로 시각적, 인식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 이동 경로 상에 관계의 요소를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를 하면서 폐쇄적인 골목길을 탈피하고 소통의 장이 되는 골목길을 만들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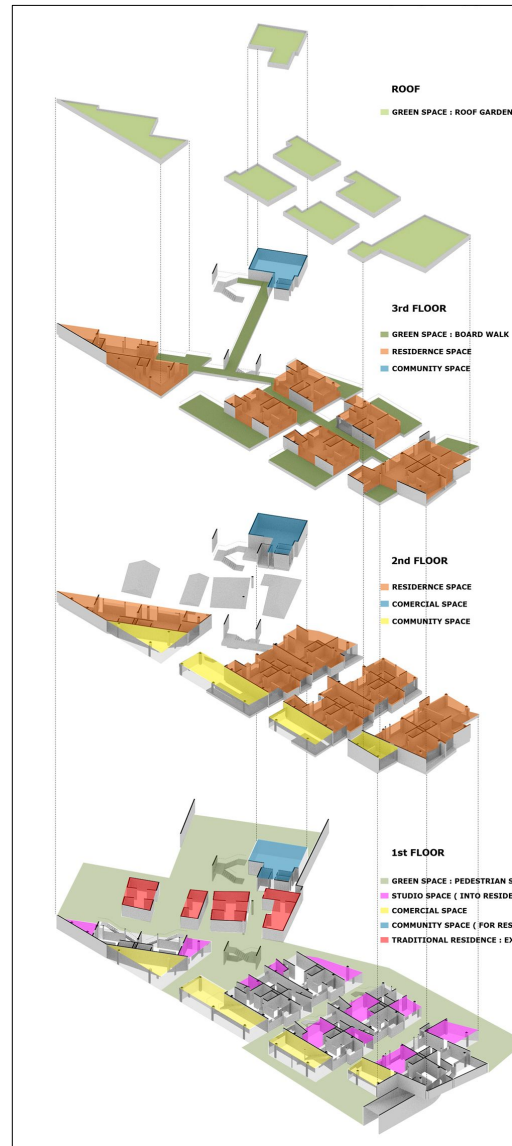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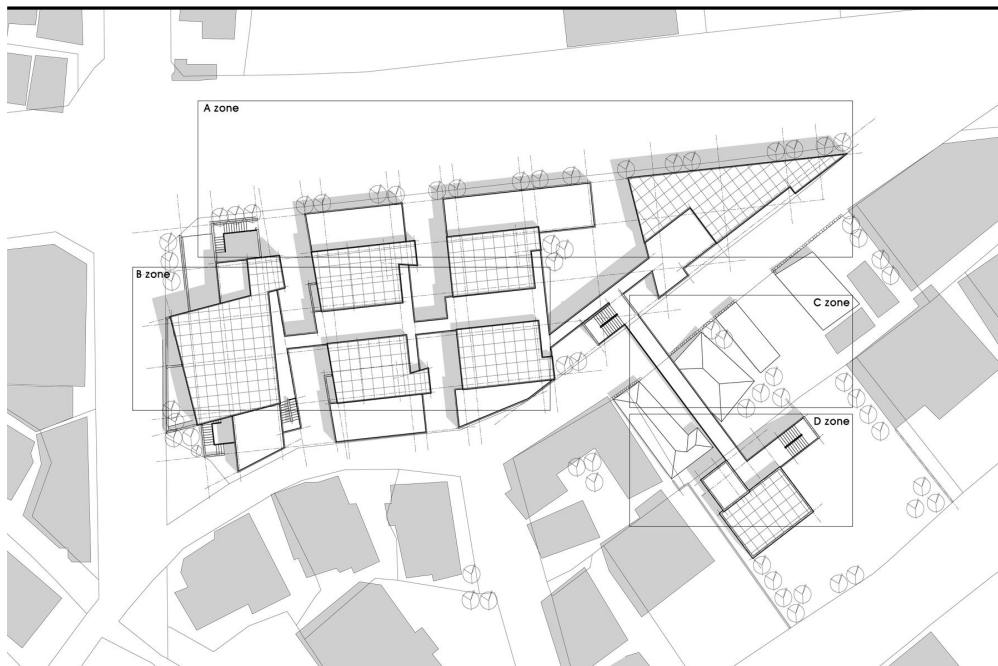
그림 2) 프로그램 구성

5.4.2 배치 계획

계획 대상지를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보고

- 상업시설은 전면 도로부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개방감을 주도록 배치하고
- 주거시설은 전면 도로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도록 배치하였다.
- 주거지와 초등학교의 연계를 꾀하기 위하여 연결 대상지에 노유자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고, 전통 초가는 개보수하여 내부는 커뮤니티시설로 이용하고 외부는 브릿지를 통하여 시각적 연계성을 주어 건물을 역사성을 느끼도록 배치하였다.

표 15) 배치 계획 개요



A zone	거주지의 활성화를 위한 복층 상가 시설
B zone	거주자를 위한 주거 시설
C zone	역사적 건물을 개보수한 커뮤니티 시설
D zone	초등학교와 연계한 유치원과 경로당 시설

5.4.3 Mass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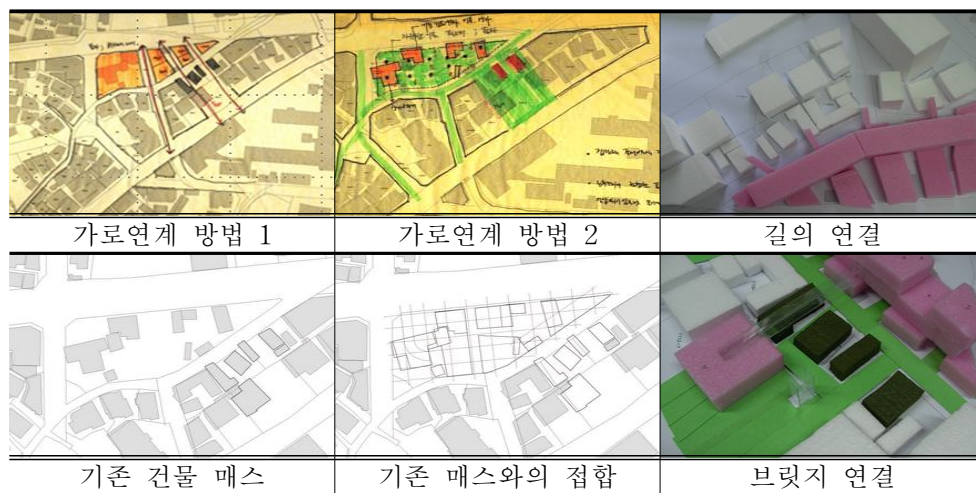
대상지에는 기존 건물이 존재한다.

매스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와 초등학교 사이의 단절된 공간을 풀어주기 위함으로 대지의 남북으로 통과 동선을 만들었다.

통과 동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매스를 나누는 방법과 불규칙적인 필로티 하부 통과 동선을 고려해보았다.

기존 건물의 위치를 고려한 매스 계획을 함으로써 과거의 흔적을 배치에 담아보았다.

표 16) Mas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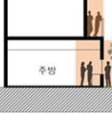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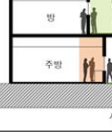


5.4.4 공간 계획

전체 배치 계획에서 파생된 공간의 계획은 분할된 동선의 유입과 시설간의 연계로써 다양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의 건축적 변용

표 17) ‘세 가지 생태학’ 다이어그램 대응관계

유 형	다이어그램	해 석
기존 폐쇄 골목		기존 골목은 폐쇄적이다. 아무런 관계성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행자는 폐쇄감을 느끼게 되고 골목은 슬럼화 되어간다.
사회+환경생태학		길에 면한 주방을 오픈시키면서 관계성이 발생한다. 녹지도 계획하면서 사회+환경생태학의 접합이 이루어진다.
사회+정신생태학		1층 작업실 공간과 주방, 2층 테라스 등 모든 공간에서 관계성이 발생한다. 외벽재료는 주변 건물의 재료를 사용하여 재질의 연속성을 꾀한다.
사회+환경생태학		작업실과 주방이 오픈되어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관계성이 적극적인 공간이 생기게 된다.
사회+환경+정신생태학		사회+환경+정신 생태학이 모두 겹쳐진 공간 다이어그램이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공간 계획이 이루어진다.

2) A zone

상가를 위한 시설이 배치되며 전면 대도로 변에 설치하여 상업시설의 연계를 통해 거주지의 경제적 활성화를 꾀한다. 상가는 복층형 상가로 계획하여 전면에서 개방성을 강조하여 상가로 유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표 18) A zone 공간계획



상가를 복층으로 계획하여 전면도로에 개방감을 가지도록 하여 상가의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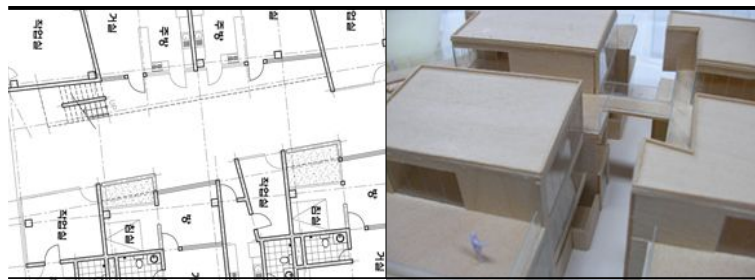
개방감을 높여주는 복층 상가 계획

3) B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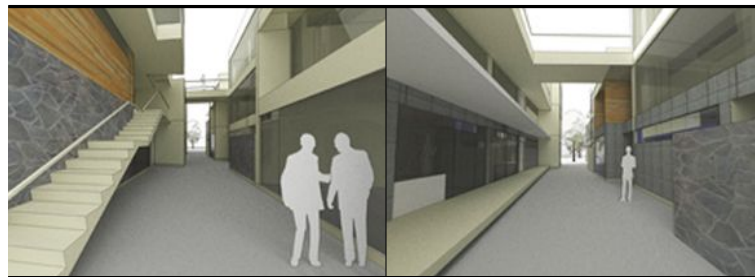
주변 주거지와 연계되는 통과 동선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주거지이기도 하다. 주거지와 통과 동선 두 가지 역할을 하며 커뮤니티를 일으키는 공간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주거 유닛 부분의 사적인 공간은 철저히 보호하고, 주방과 소호 사무실과 같이 비사적인 주거공간은 오픈하여 개방감을 높여 관계성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 부분은 펠릭스 가타리의 사회 생태학을 해석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19) B zone 공간계획



통과 동선을 계획하여 관계성을 높여 폐쇄적이지 않은 골목길을 계획하였다.



관계성이 일어나는 주거지 골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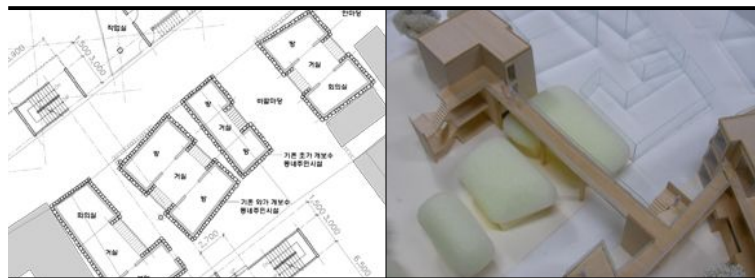
4) C zone

기존 80년 정도 노후된 제주 전통 초가 두채가 있다. 현대의 생활에 맞춰 평면을 변형하여 주거시설로 이용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하였다.

입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부에 브릿지를 설치하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제주 전통 초가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역사의 지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주거지의 역사성을 유지하는 것은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중 정 신생태학적 측면을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표 20) C zone 공간계획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하게 계획함.



외부 공간에서 시각적 연계를 통해 역사적 주거지임을 인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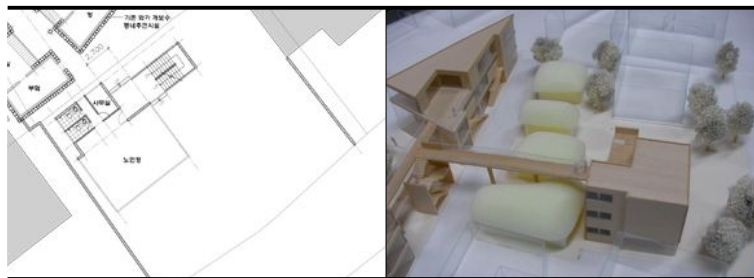
5) D zone

기존 주거지와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결은 주거지의 연속성을 꺾을 수 있는 계획요소이다.

현재의 대지 상황은 대지 사이의 관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유아원과 노인정 시설을 계획하여 주거지와 초등학교 대지와의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적 연계를 계획하였다.

이 부분 또한 가타리의 사회생태학적 개념에서 계획을 적용하였다.

표 21) D zone 공간계획



기존 초등학교와 주거지의 연결을 꺾하였다. 브릿지의 방향성도 연계성을 강조한다.



막혀있던 가로체계였으나 대지를 관통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연계를 시킬 수 있다.

5.4.5 평면 계획

개인 주거 공간은 근대이후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가 가장 잘 보호되고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 비사성이 강조된 공간구조를 가진 계획안과 완공주거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주거생활문화의 변화에 기인한다.

라일리(Terence Riley)는 “건축의 모든 문제는 개인주거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헬리온(Jean Helion)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주거의 “문화적 반영”과 “건축적 지향의 표시기”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현대건축의 한 단면을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삶의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개인 주거공간의 변화에 작업공간의 개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보다 포괄적으로 그가 가장 주목한 오늘날의 개인주거공간의 특징은 열린 형태의 통합적 공간의 등장과 문화적 환경변화의 건축적 수용이다.

그가 굳이 현대건축전에 “비사적주거(The un-private house)”를 명명한 이면에는 외부세계의 비사적 성격들이 개인주거공간 내에 반영되어 공간적 변화를 가하고 있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서술은 주거의 프라이버시와 공적 공간간의 관계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배경을 ‘투명성을 매개로한 경계 인식’,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주거와 일의 관계’와 같은 세 관점으로 요약이 가능하게 한다.⁸⁾

8) 신병윤, 김광현, 개인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와 공적공간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학회지, 제 25권 7호, pp.37-41. 2009



이 논문에서 라일리의 인용을 쓴 이유는 본 계획에서의 평면계획의 기본이 이 비사적 주거 공간을 공간 계획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가타리는 사회생태학에서 친족연계는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 생활은 대중 매체적 소비로 침식되고 있으며, 부부생활과 가족 생활은 종종 일종의 행동 표준화(획일화)에 의해서 ‘경화(硬貨)’되며 이웃 관계도 일반적으로 아주 빈약한 표현으로 축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골목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기존의 폐쇄적 골목에 비사적주거(The un-private house) 공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골목의 폐쇄성을 없애고 보행자에 의한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지하층 평면도

주차는 모두 지하주차로 해결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차량 통행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보행환경을 중요하게 계획하였고 , 세 군데의 진입부에서 지하층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3) 지하층 평면도

②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에서 상가 계획은 전면 도로 위주로 배치하였다. 주거지의 경제적 지속을 위하여 주거지내 상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제는 골목길에 들어서서 소통의 문제인데 기존의 골목은 아무런 소통이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사회생태학 측면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골목길의 1층 주거에서는 앞서 이야기 한 비사적주거(The un-private house)공간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방공간과 작업공간은 골목 전면으로 개방적으로 내세워졌다.

침실과 거실과 같이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주거공간은 가벽을 이용하거나 높은 창을 두는 방법으로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 외 주방과 작업공간은 완전한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골목을 통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증진을 도모하면서 기존 골목의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4) 1층 평면도

③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에서 주안점을 둔 요소는 수직적인 동선을 해결함과 동시에 커뮤니티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기존 아파트는 수직 동선이 엘리베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엘리베이터 공간은 갑작스런 공간의 상호 침투로 인해 안정적인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다.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사람들은 침묵하게 된다. 이는 수직 동선으로 엘리베이터가 커뮤니티 관계 형성에는 부적절한 수단임을 말하는 것이다.

저층 계획안의 장점은 수직 동선에서 계단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외부계단을 통해 수직이동을 함에 따라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던 관계성 형성이 수직적으로도 일어나면서 입체적인 관계성 라인이 형성되게 된다.



그림 5) 2층 평면도

④ 3층 평면도

3층이라는 높이는 수직 동선을 통해 올라간 후 해당 층에서만 관계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1·2층과의 소통은 어려운 높이가 된다.

그러므로 1·2층과는 다른 관계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평면이 요구된다.

즉, 1·2 층과는 연계가 힘들고 3층 자체 내에서 관계성을 유지시키도록 평면의 구성이 저층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본 계획안의 3층 평면도에서는 세대 간 커뮤니티 공간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였다. 주방과 같은 비사적 공간을 전면에 두어 세대간 개방시킬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개방시키고 주방을 통하여 직접 외부공간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외부 식사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3층 세대간 커뮤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하였다.



그림 6)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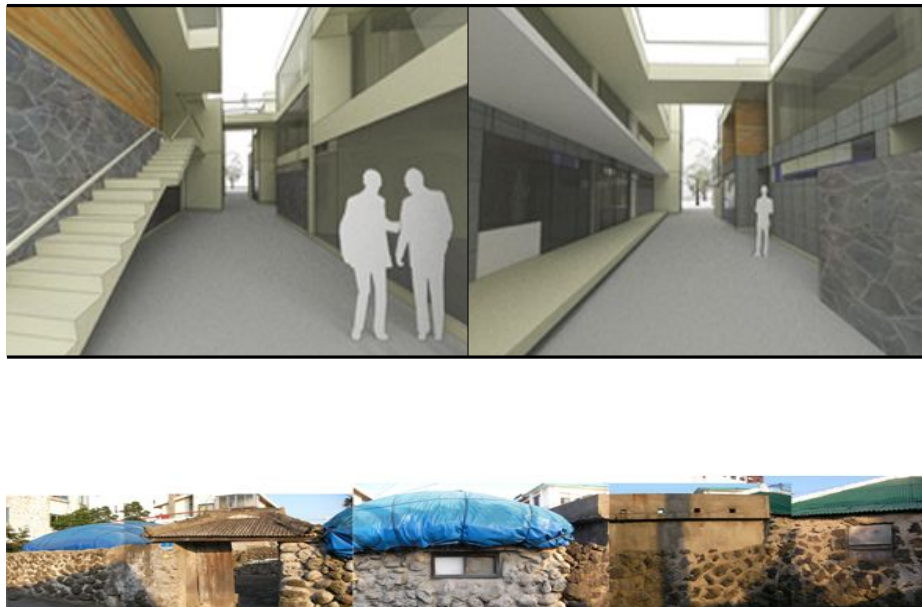
5.4.6 입면 계획

본 계획에서 입면에서는 입면의 형태보다 재질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다.

계획 대지 전면에 노후 된 제주초가 두 채가 있다. 이들 초가가 가지고 있는 돌담을 계속 연장시켜 골목 안에서도 돌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저층부는 석재를 쌓거나 판석을 벽에 붙여 재질감이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계획하였다.

계획은 주변 기존 건물의 외장재 재질을 적용하는 계획안을 위주로 계획하였다. 이는 가타리의 정신생태학 측면과 연관성이 있는 계획으로서 노후화 되었다고 그 재료와 공간을 모두 없애는 계획보다는 그 노후화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공간감과 재질감을 되살려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생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계획 방향이라 판단된다.

표 22) 입면 재질의 연속성



5.4.7 단면 계획

본 계획에서는 3층 브릿지를 통하여 기존 노후주거의 상부를 지나는 브릿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브릿지를 통과하면서 제주 옛 초가를 보도록 하여 인근 주거지에서도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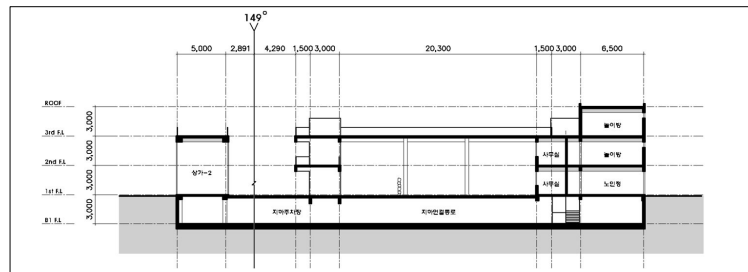


그림 7) 단면도 - 1

브릿지 뿐만 아니라 수직 계단 이동을 통해서 어디서나 제주 옛 초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역사적 주거지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커뮤니티 증진을 위하여 고층형의 주거지 보다는 저층형 주거지로 계획하여 보행인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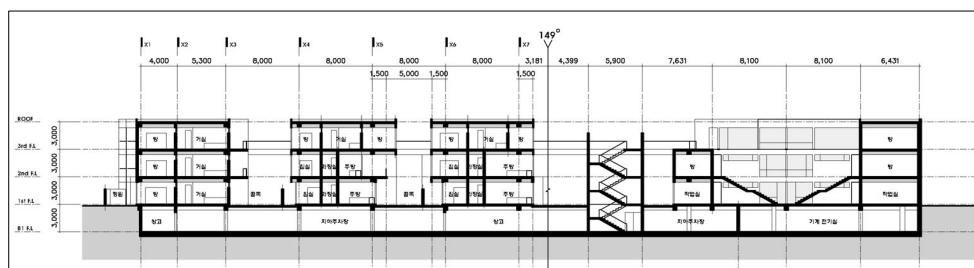


그림 8) 단면도 - 2

5.5 전시패널 /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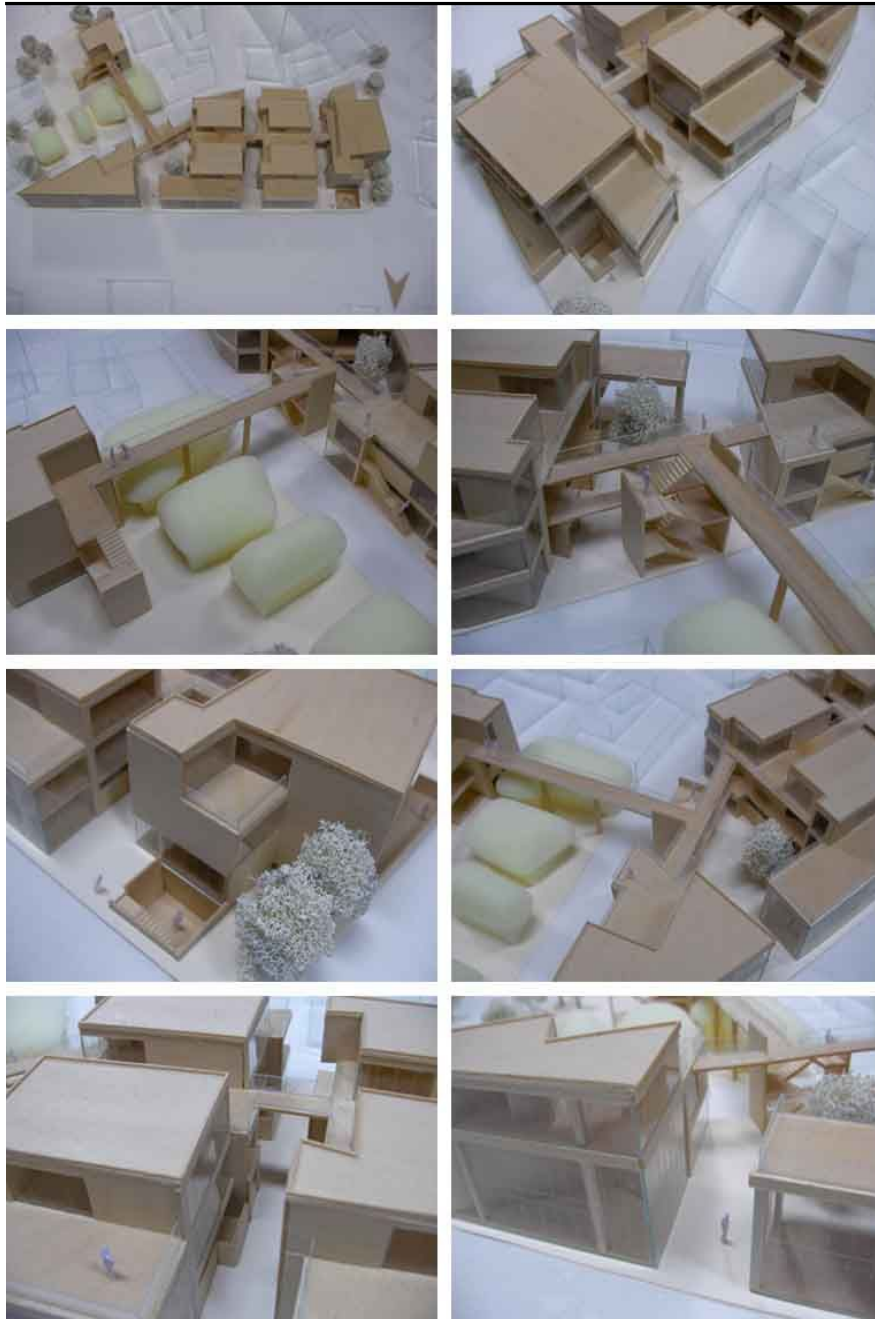
5.5.1 전시패널

표 23) 전시 패널



5.5.2 모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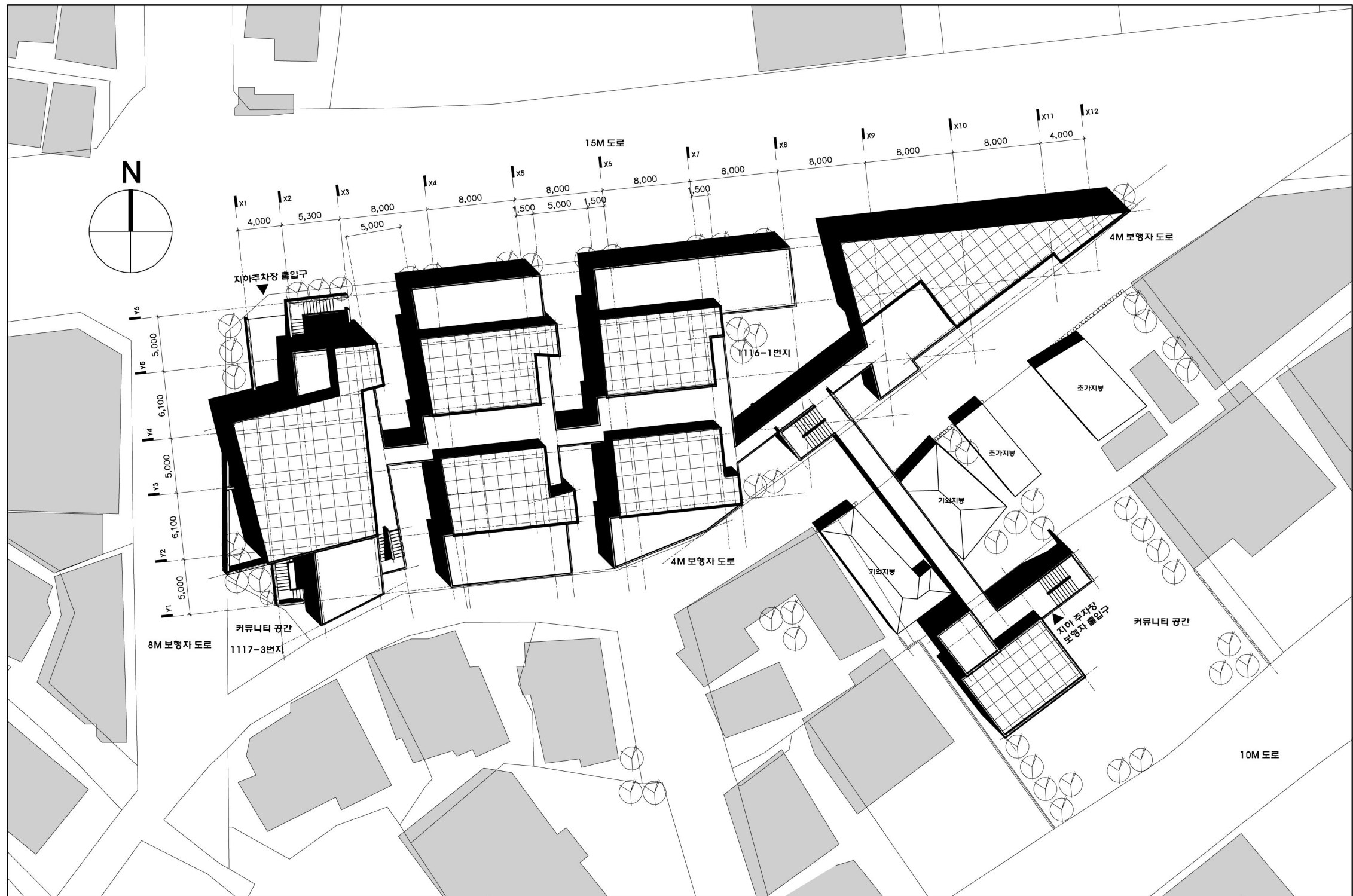
표 24) Model Image



5.6 계획도면 / 투시도

- 001 배치도
- 002 지하층 평면도
- 003 1층 평면도
- 004 2층 평면도
- 005 3층 평면도
- 006 단면도 1
- 007 단면도 2
- 008 Perspective View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

배치도 Scale 1:400 No. 001



HONGI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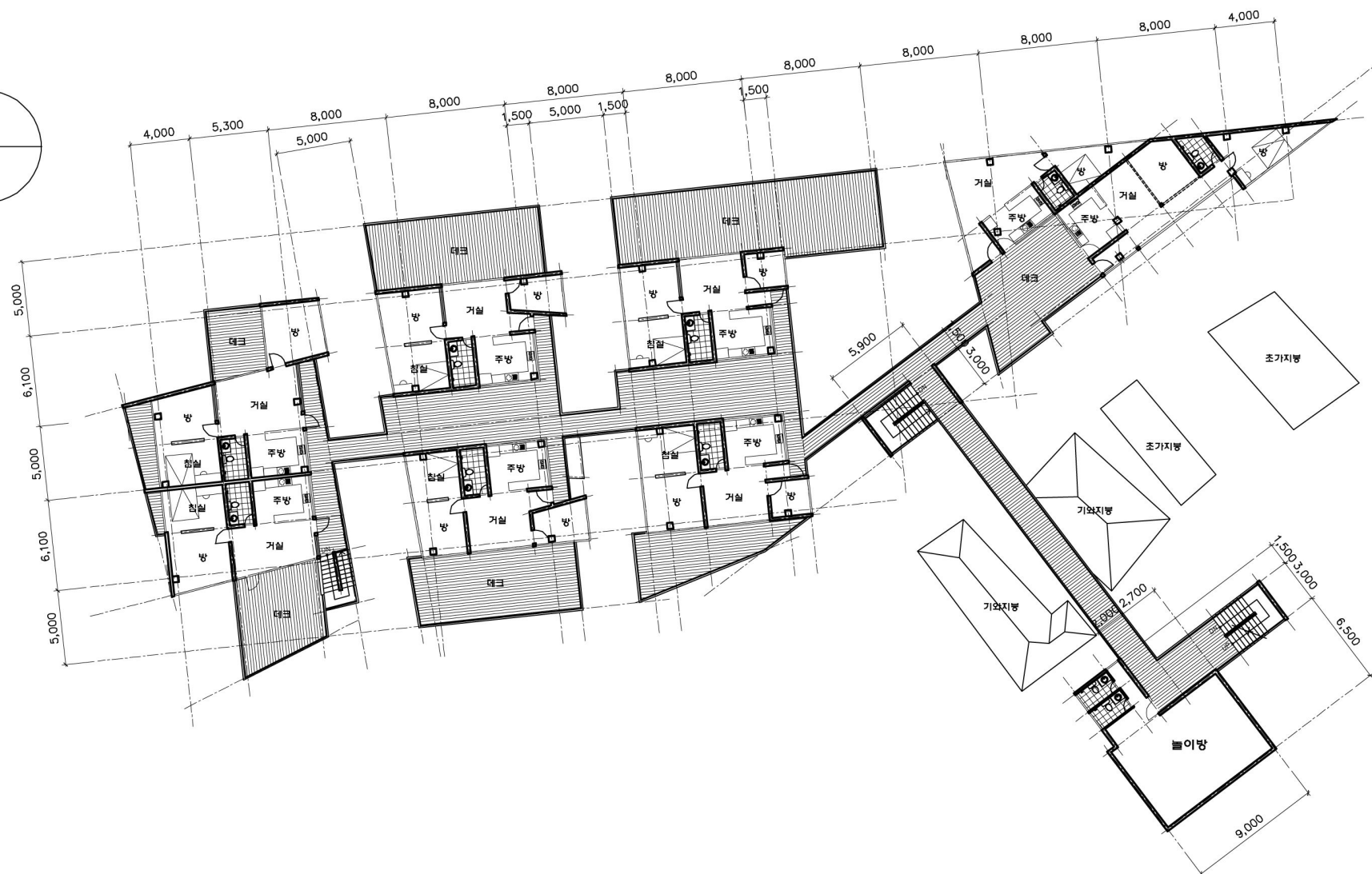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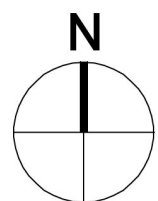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

1층 평면도 Scale 1:400 No. 003



HONGI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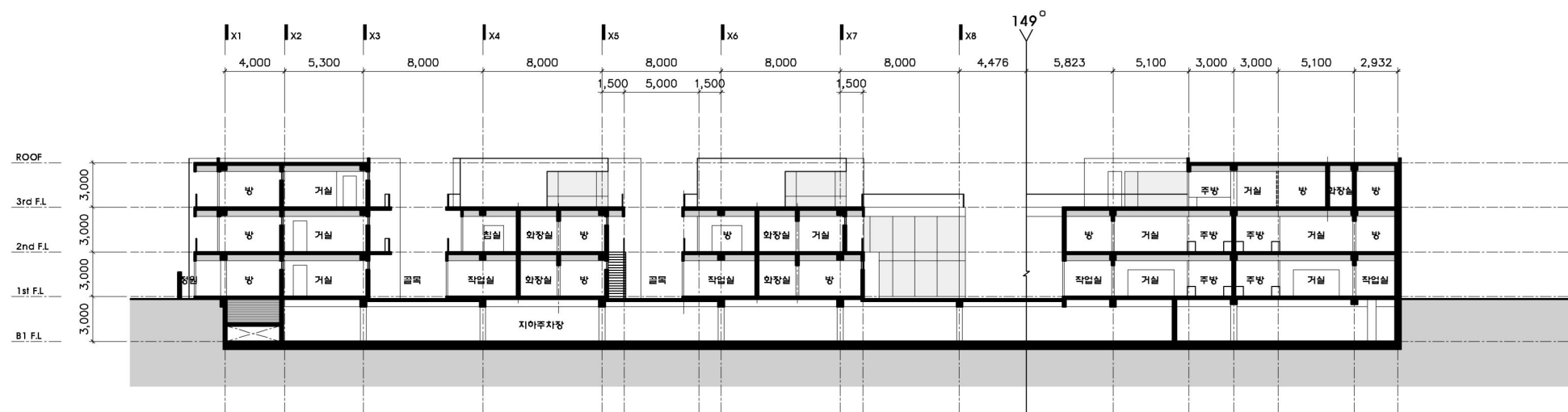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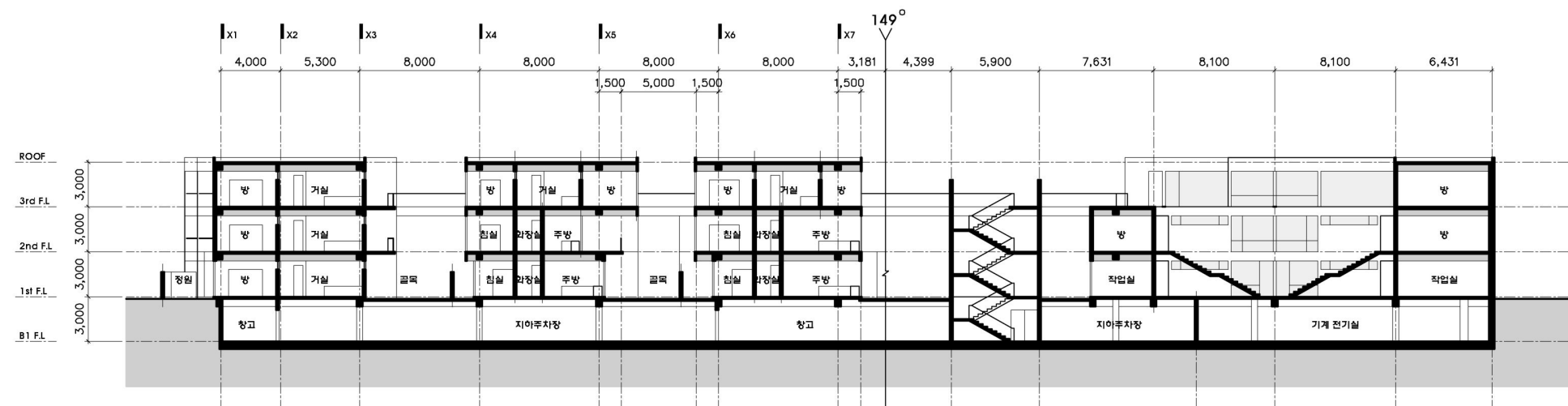
제주도 무근성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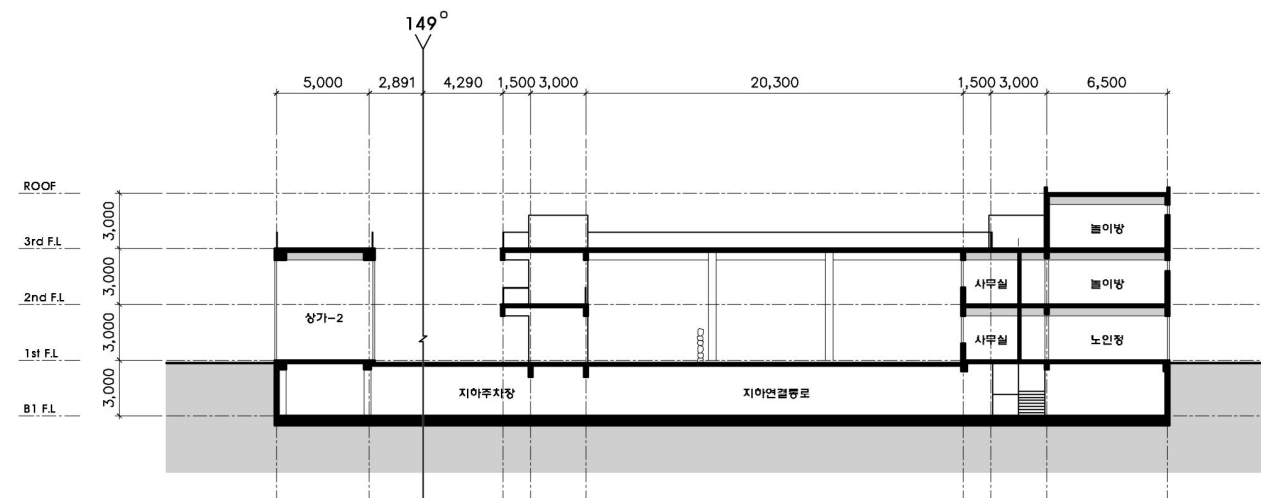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Scale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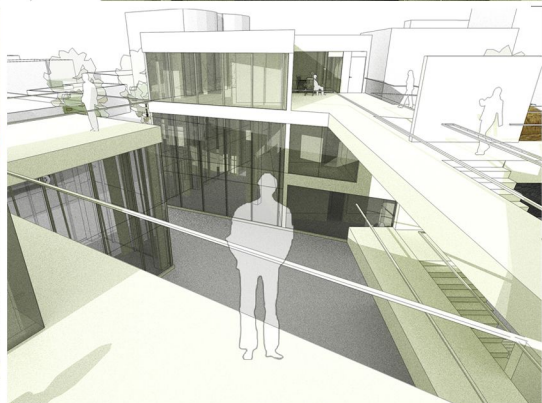
No. 005



HONGIK UNIVERSITY







No. 008

Perspective View

제주도 마그리드 일대 노후주거지의 생태적 재생 계획안



HONGIK UNIVERSITY

6. 결 론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의 구도심에는 전통적인 공간구조와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들이 남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의 노후화, 거주자 생활상의 변화, 차량의 증가, 규제완화, 상업 업무용 건물의 수요증가 등의 원인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 가고 슬럼화 되어가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철거하고 재개발 하는 현재의 재생 방법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원거주민의 재 입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지속적인 주거지로서의 흐름을 끊는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사유에 기대어 건축적 해석을 통해 디자인 방법을 연구하여 건축 계획에 적용하여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생태학’ 사유를 바탕으로 한 생태적 재생 방법의 디자인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면,

1. 사회생태학적 측면은 주거건축의 관계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성 형성은 주거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사회생태학에서 말하는 관계성 구축은 다양한 디자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2. 환경생태학적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현대 건축디자인 방법에서는 꼭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방법이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디자인 방법은 지속



가능한 건축의 관점에서 볼 때 재생의 디자인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정신생태학은 ‘노후화’라는 정의 하에 묻혀져버린 가치 있는 공간을 재생의 방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도시조직의 변화와 연속 그리고 보존과 개발이라는 도시 성장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기본 전제로 하고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주거지를 펠릭스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측면에서 바라보아, 노후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타리의 생태철학 이론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노후주거지를 생태적으로 재생하는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태적 재생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함과 동시에 철학자의 사유를 근거로 삼아 건축적으로 재해석 하고, 이를 실제 계획안에 제안하여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재생에 대한 계획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적 철학 사유를 가지고 디자인 방법을 도출하여 보았으나, 저자가 도출한 디자인 방법과 더불어 더 많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생태 철학자의 사유를 건축화 하여 도출해 내어 다양한 생태적 디자인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Félix Guattari,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2003

■ 연재칼럼

윤수중, 카오스모제의 생태학, 한국사회이론학회Vol.33, 2008

윤수중, 가타리의 생태학적 문제제기 : 세 가지 생태학, 진보평론, 2008

■ 학위논문

김청원,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 서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학회논문

이찬규, 가스통 바슐라르와 펠릭스 가타리:생태학적 상생의 문화를 위하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2집, 2008

박천보, 오덕성, 해외 노후 공동주거단지의 재생특성 및 국내 관련성 검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 4호, 2009

정재용, 박훈, 서울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06

김건형, 이연숙, 연쇄형 주거지재생지역 발리문(Ballymun) 사례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통권15호, 2008

신문식, 이왕로, 최윌, 국내외 주거단지의 생태적 계획특성 도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Vol 208 No1, 2008



- 이창호, 서수정, 배응규, 현지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2007
- 신중진, 김태엽, 일본의 통합적 정비수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례 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v.24 n.11, 2008
- 이태구, 노후 아파트단지의 친환경적 개량화, 대한건축학회 Vol.52 No.5, 2008
- 양우현, 우리나라 도시전통주거지역의 보존과 재생의 방향, 환경과학연구 Vol.6, 1
995
- 제혜성, 고밀도 집합주거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33권 6호, 1989
- 황지욱외 4인, 도심 주거재생을 위한 저층고밀 단독주거지 유형분석과 적정규모
산정,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24권 5호, 2008
- 이윤희, 생태중심적 사고와 현대 생태학적 건축의 상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8호, 2009
- 신병윤, 김광현, 개인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와 공적공간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 대한건축학회학회지, 제25권 7호, 2009
- 문지원, 김주현, 하재명, 도시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통마을 공간 구조 특
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9, 2008
- 김형남, 1940년대 제주도 주택의 평면형태 및 가구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대한건축학회지, 제11권 1호, 2009
- 박훈, 정재용, 역사도시의 도시조직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
건축학회지, 제25권 제5호, 2009



■ ABSTRACT ■

A Study of Ecological Renewal planning for Jeju-do
Mugeunseong's Old Downtown Residential Area
- Based on Félix Guattari's 'Three Ecologies' -

Supervised by professor Joh, Hahn

Kim, Dong Hun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Architecture design major of Architecture department

Yang, Hye sook

In the existing downtown area, there remain resident areas where the traditional space structures and architecture styles exist. But recently the resident areas are facing rapid change due to phenomena such as cavitation of the downtown area, that is, there the floating population is secured, but resident population is not secured, which was caused by the relaxation of regulation, deteriorated buildings, the change of resident life style, the increase of the demand for commerce and business building, the increase of cars etc. This is the reason why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was required and the development of existing downtown areas is currently being executed in two ways of redevelopment and renewal.



But now the method of redevelopment focused on removal is the major trend. This method is causing the discontinuity of the history of resident area as well as making re-residence for original residents after redevelopment difficult. As the result, this is causing the ecologic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method of ecological renewal for existing downtown areas where are losing the function as resident place, not by the method of whole removal redevelopment, and then to suggest the plan. In the renewal method,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cological renewal method bringing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Felix Guattari. The reason using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Felix Guattari is that the 'ecology' thinking of Felix Guattari includes the environmental aspect, and furthermore as the ecological concept showing wide scope, it can suggest the other direction of modern architecture toward future.

Guattari judged that the planet named the earth is experiencing sudde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nge,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ecological unbalance which can eventually thrill the continuation of life in the earth, if the unbalance is not cured. And he said that with these violent changes, the deterioration of personal and group based human life style is on going. He said that the linkage between relative tends to be reducing at least and home life became weakened due to consumption stirred by mass media. He added that married life and family life became frequently 'hardened' due to a kind of behavior standardization(uniformity) and neighborhood relationship became weakened due to generally very poor expression. Based on these opinions, he



judg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ity and its external things became obsessed by the overall movement of a kind of implosion and infantile regression. Therefore he defined insisting 'the three ecologies' that the ecology in authentic sense is possible, when the three of Environmental ecology, Social ecology and Psycho ecology become one.

Based on the thinking of 'the three ecologies' of Felix Guattari which i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is research, the contents of this study about the ecological renewal plan of deteriorated resident area around Mugeunseong in Jeju island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clarified the design method applicable for ecological renewal through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obtained from the expansion of thinking view depending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Felix Guattari.

Second, through the analysis of ecological renewal cases on the deteriorated resident complex, this research clarified the design method applicable analysing form and space creation technique which can suggest ecological renewal of resident complex.

Third, Based on the thinking of 'the three ecologies' of Felix Guattari which was theoretically reviewed, this research draws the ecological renewal plan of deteriorated resident area around Mugeunseong in Jeju island.

Based on the acceptance of resident's request and basic premise of fundamental mechanism of city growth such as change and continuity of city organization 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this research sees the resident areas with the footprints of historical changes from the viewpoint of 'the three ecologies' of Felix Guattari. And then this research intended to draw the



ecological renewal plan of deteriorated resident area analysing the ecological problems included in the deteriorated resident area, and architecturally interpreting the theory in Ecosophy of Felix Guattar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plan for ecological renewal in its authentic sense approaching with the concept in wide sense about ecology, at the same time, suggesting actual plan based on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with the ground of philosopher's thinking.

